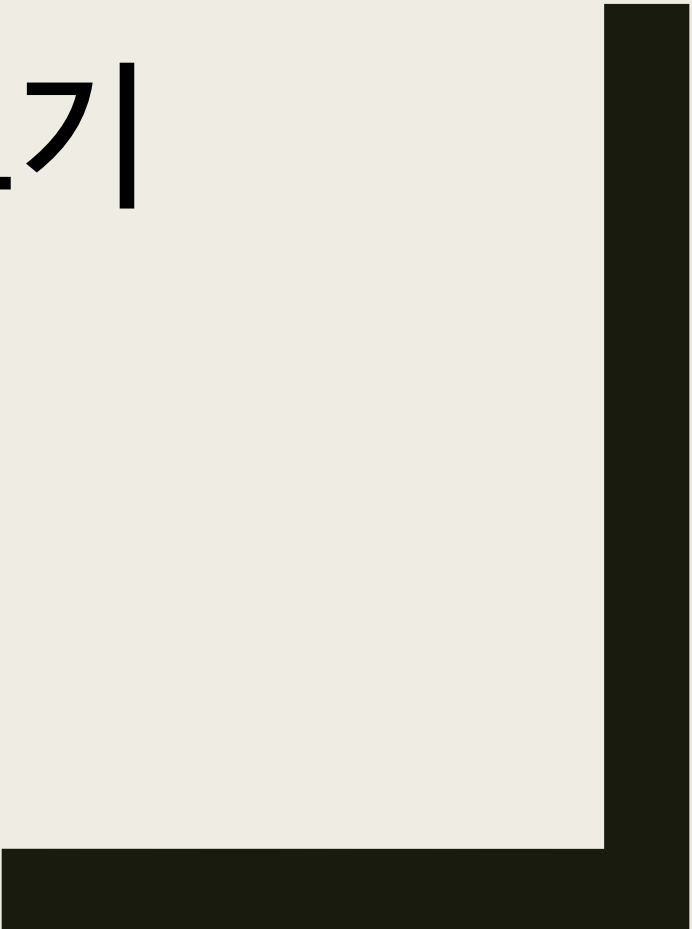


5장 비평적 글쓰기

(P.132)



비평적 글이란?

‘작품’을 분석하여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글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과 표현 방식, 의미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글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글

평가한다는 것?

작품의 관련된 여러 **내용(주제)**에 대해

글쓴이의 **생각, 견해를 제시하는 것**

비평적 글쓰기의 방법

- 1) 비평 대상을 간략하게 소개
- 2)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3) 인용이나 예증의 방법 활용
- 4) 글쓴이의 판단과 창의적인 관점 드러내기

1) 비평 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 글쓴이와 독자가 비평 대상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행위**
- **작가, 작품명, 출판사, 발표 시기, 작품 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
- 대상과 관련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
- 왜 이 대상을 비평하고자 하는지 **이유**를 밝힘

2)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하기

-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근거를 들어서 평가
-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독자가 신뢰할 수 있고, 독자와 생산적인 소통이 가능
-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p.134)

- 비평 대상과 관련 있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각종 서적, 신문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살핍
- 서적, 신문 자료 등의 내용을 참조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작성한 것인지 확인
- 인터넷 자료의 경우 신뢰할 만한 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참조

3) 인용이나 예증의 방법 활용하기

-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혹은 자료 등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
- 예증은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증명하는 것
-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관점이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을 독자에게 쉽게 전달 가능

- 작품의 내용
-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 사회 현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인용이나 예증의 방법을 사용할 때 유의사항

- ① 인용 내용이 길 경우에는 단락의 좌우 여백과 행간 등을 조정하여 해당 내용이 인용임을 드러냄
- ② 짧은 내용을 인용할 때는 큰따옴표(“”)를 활용
- ③ 원 글의 맥락이나 해당 내용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인용

4) 글쓴이의 가치 판단과 창의적인 관점 잘 드러내기

-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높게 평가하는 작품일 경우, 무조건 기존 평가에 편승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관점에서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여 평가
- 작품의 의도, 작품의 독특한 표현 방식, 작품의 효과 등에 대한 글쓴이의 독창적인 생각과 느낌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비평적 글쓰기의 실제

1. 서평 쓰기

2. 영화평 쓰기

서평 쓰기란?

- 서평은 책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 평가한 글
- 책에 대한 가치 판단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글쓰기의 감상 위주로 쓰는 독서 감상문과 성격이 다름
- 독자는 서평을 통해 책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독서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음

서평 쓰기 방법

1.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2. 책에 대한 판단의 내용과 근거 제시



3. 인용과 해설 등의 방법 활용하기

1. 책에 대한 소개

- 책의 기본 정보, 서평을 쓰게 된 동기

- ① 제목, 작가, 출판사, 출판 연도

- ② 작가의 의도, 맥락 등의 사회적 배경지식

- ③ 내용

- 전체적인 내용(줄거리)

- **핵심적인, 인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 ✓ P.138 예문 보기

2. 책에 대한 판단 내용과 근거 분명하게 드러내기

1) 책에 대한 판단 내용 및 근거

- 판단(긍정적, 부정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판단의 내용 대한 구체적인 근거

2) 해당 책에 대한 기존의 평가

- 기존 평가에 찬성하면서 새로운 의미 부여
- 기존 평가와는 다른 새로운 평가 내용 제시

3. 인용과 해설 등의 방법 활용하기

1) 인용의 방법 활용

-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등을 가져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
- 책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적인 관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인용
- 책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인용

2) 해설의 방법 활용

- 책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해설하면서 서술하는 방식을 활용

진화된 유전자임을 증명하는 방법

: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2021년 2학기 대상 수상작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는 말이 있다. 가위는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 태어나고, 지우개는 무언가를 지우기 위해 태어나지만, 인간은 어떤 본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 적어도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것이 선제조건이며 본질은 그 뒤의 일이다. 실제로 인간마다 어떤 궁극적인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당연하게도 각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것은 유전보다는 경험이 남긴 흔적이다. 태어날 적부터 “제 목표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라고 웅 알이를 하는 아이는 없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가위나 지우개가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자라난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치관을 지닌 채로 개인의 취향과 목표를 정립한다. 누군가는 광활한 우주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싶어 한다.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며 본질이라 말한다. 그 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이 자신의 생애를 결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말 유전자일까. 우리의 취향은 유전으로 인해 결정되는가.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계속해서 복제되는 유전자만이 지금까지 남는다는 것을배웠다. 생존에 유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원시에서 지금까지 쉽게 살아남았을 것이다. 그러나식물에는 관심이 없던 내가 식물을 사랑하는 타인을 오래 바라보며 그 애정에 매료되어 식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말 내 유전자의 성질 때문일까. 인간은 유전자의 성질로만 살아가는가. 글썄. 나는 책과 글을 좋아하는 나의 성질이 생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결국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이라 허무감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의 몸은 유전자가 살아남기 편리한 방향으로 진화되었고, 현대의 우리는 진화의 결과물에 불과하니까. 유전자의 복제에 따라 우리는 그저 유전자의 운반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이기적유전자>의 결론은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니었다. 되려 <이기적 유전자>는 인간에게 태초부터 우등한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의 가치관의 과학적 증거가 되었다. 운명은 존재할까. 우리 삶의 커다란 축은 이미결정되어있는 것일까. 결국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속성을 타고난, 우등한 유전자를 가져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유전자는 단지 유전자다. 그저 복제하며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버드박스’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바이러스는 시각을 매개로 전염된다. 바이러스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결국 영화의 결말에서 시각장애인 학교라는 안전지대를 발견한다. 시각장애인 학교의 학생들은 볼 수 없으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그들은 전과 다름없이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한다. 영화 속 세계에선 우리가 우등한 유전자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비정상적이며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열등한 유전자로 반전된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며 유전자 그 자체에는 정상과 비정상, 우등과 열등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전자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다.

우등한, 진화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앞에서 말했듯 진화는 살아남은 변이의 이름일 뿐이며,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유전자가 진화한 유전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의 능력과 본질에 대해 회의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좋은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 탄식할 필요도 없다. 진화는 우리의 생애를 지나 후대에서야 인정된다. 우리의 유전자는 어떤 이상을 목표로 변이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진화형에 이데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인간의 진화에는 하나의 목표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삶의 목적을 세울 수 있는 개체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파헤칠 것이라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그저 행복한 하루를 조금씩 살아내겠다는 등의 다양한 목표를 세운다. 특이하게도 유전자의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는 인간은 단순한 ‘생존’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인간은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남고, 그렇게 살아남은 인간이 가진 유전자는 결국 진화한 유전자가 된다. 우등한 유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남음으로써 그제야 증명되는 것이다.

서평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

1) 책에 대한 기본 정보	제목 (필수)
	글쓴이 (필수)
	제작 연도, 출판사
	간략한 줄거리, 인상적인 특정 부분 등
2) 책에 대한 평가 내용과 근거	책을 소개하는 이유, 평가(장점 or 한계점)와 근거 / 자신의 생각(주제)과 근거 (필수) 
3) 인용, 해설 방법 활용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인용 (필수)

2. 영화평 쓰기

영화평 쓰기

영화평에 나타날 수 있는 내용

1.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담기
2. 영화 특성이나 다양한 표현 기법 등을 근거로 하여 평가하기
3. 다른 대상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부각하며 평가하기
4. 영화 감독이나 배우의 작품 경향 고려하여 평가하기
5. 영화에 대한 인용과 해설한 내용을 활용하기

1.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담기

- 기본적인 내용
 - 감독
 - 주연 배우
 - 제작 연도
 - 내용
 - 간략한 줄거리 / 인상적인 내용

2. 영화의 특성이나 다양한 표현 기법 등을 근거로 하여 미적 가치의 평가를 잘 드러내기

- 영화 **고유의 특성**이나 다양한 **표현 기법**
- **배우**들의 **연기**, **주제 의식**
- **플롯**, **색채**나 **음향**, **화면의 구성**, **카메라의 움직임**



이를 근거로 영화에 대한
해설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함

3. 다른 대상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부각하며 평가하기

- 유사한 소재를 다룬 서로 다른 영화
- 동일한 영화 감독이 제작한 다른 영화



영화들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서술을 통해
그 영화가 지닌 독특한 특성을 부각하며 평가함

4. 감독이나 배우의 작품 경향 고려하여 평가하기

- 특정 영화 감독, 배우의 **작품 세계**와 **경향**을 고려함
- 특정 **장르**의 **흐름**을 고려



특정 감독, 배우의 작품 세계와 경향을 통해서 또는
특정 장르의 흐름을 고려하여 해당 영화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비평

5. 영화 대한 인용과 해설한 내용을 활용하기

- 영화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등을 가져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
-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인용
- 해당 영화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적인 관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인용

‘<리틀포레스트>’는 시골생활 판타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영화 <<리틀포레스트>>를 보고

2021년 1학기 최우수 수상작

“나는 <리틀포레스트>를 보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있어 휴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영화를 보는 순간만이라도, 연애, 취직의 걱정거리는 잊고 혜원과 친구들의 특별한 사계절을 보고 있으면 조금씩 여유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판 <리틀포레스트>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걱정 그리고 그것의 해소에 대한 임순례 감독의 바람이 이 영화를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임순례 감독이 그리고자 한 내용은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듯하다.

이 영화의 키워드는 시골, 대자연, 슬로우 라이프, 행복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치명적인 실수는 감독이 그리고자 했던 주제 무엇 하나 제대로 표현된 것 없이 단순한 캠핑 먹방에 그쳤다는 것이다. 일본 원작의 경우 촬영 스텝이 현지에서 머물며 4계절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촬영하고 촬영 이동 중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차를 멈춰 세우고 촬영을 하는 등 감독과 촬영 스텝이 작품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지하여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원작의 중요한 테마이기도 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찰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판의 경우 자연의 경관보다는 등장인물의 관계성에 더 주목하였고 특별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다. 또한 요리에 쓰이는 식자재를 재배하는 과정을 깊이 있게 묘사하여 음식에 스토리를 더해 실제적인 시골의 모습을 관객들에게 전달한 원작과 달리 한국판의 혜원은 그저 무념무상으로 이른바 먹방 찍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이 영화가 당초 목표로 했던 휴식이라는 주제가 도시생활에 지친 젊은이들이 갖는 시골생활에 대한 공상과 로망으로 포장된 판타지에 지나지 않음을 뜻한다.

이번 한국판 영화의 아쉬운 점 첫 번째는 스토리 구성에 있다. 임순례 감독은 일본 원작 영화와 달리 등장인물 3명 간의 관계성에 집중했다. 영화 초반부터 혜원과 은숙, 그리고 재하 사이의 미묘한 러브라인이 형성되고 함께 요리를 해서 먹고 술을 마시고 상사의 뒷말을 하는 등 등장인물 3명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로 비추어지다 보니 주인공 혜원이 어떠한 목적으로 시골에 왔는지, 또 시골을 다시 떠날 때도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성장스토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영화 말미 혜원이 다시 시골로 돌아오며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어떠한 과정을 겪고 혜원이 다시 시골로 왔는지도 관객에게는 밝혀지지 않았다.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시골로 돌아왔다면 시골에서의 제2의 성장스토리가 그려져야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두 번째는 음식의 조리과정을 생략한 스토리의 빠른 전개이다.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소개되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배춧국과 주인공이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먹은 김치전과 감자전이다. 극 중 주인공이 처음으로 시골에 내려와서 해먹은 음식이 고춧가루를 넣은 배춧국 한국판에서 그려진 부분은 단지 마당에 있는 배추를 가져와서 끓이고 먹는 장면이 전부다. 그리고 주인공이 밤에 친구들과 막걸리를 먹으며 함께 먹는 감자전과 김치전은 아예 조리 과정조차 소개되지 않는다. 그저 웃고 떠들고 즐기는데 이용되는 먹거리의 소재로 전락한 기분마저 든다.

만약 원작이었다면 배추를 심고 재배하여 조리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조명하였을 테고 감자를 심고 정성스럽게 키우고 보존하여 겨울의 필수 식량으로써 활용하는 모습을 통하여 시골에서의 식생활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렸을 테지만, 한국판은 영화 한편에 원작 4부의 구성을 모두 담아야 했기 때문에 식자재의 재배과정과 조리 과정은 과감히 생략되었다. 원작에서 그리고자 했던 자연이 주는 작물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가꾸고 키워서 요리에 사용하는 모습을 임순례 감독은 과감히 생략하여 주인공의 먹방을 찍기에 몰두하였다는 인상이다.

하나의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김치를 담그는 데에도 배추 씨앗을 심고 흙을 잘 덮어주고, 잎이 자라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배추를 확인하며 잎에 들러붙은 배추벌레 알을 제거하여 정성스럽게 키운 배추를 수확하고, 김치의 재료로 사용한다. 이때 배추에 잘 손질하여 고춧가루를 바르고 잘 숙성 시켜 식탁 앞에 내놓기까지의 어머니의 고생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비가 와서 배추가 모조리 망가져 한해 농사를 접어야 하는 농민도 있을 수 있다. 시골 생활을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한 소재를 그리기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욱이 일본 원작이 그리고자 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존경의 마음이 한국판 <리틀포레스트>에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하나의 놀 거리의 장에 그쳤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힐링의 소재로 전락해버린 농촌사회. 최근 부쩍 늘어난 캠핑족, 그리고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힐링이 필요할 때면 답답한 도시를 떠나 시골을 찾는다. 작중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함과 휴식은 시골에 분명 존재한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소비하고 나면 재빠르게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 시골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소비의 한 문화가 된 것이다.

나는 이번 영화를 통해 우리가 시골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숨길 수 없다. 처음 이 영화를 보기 전 한국판 <리틀포레스트>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대학 정원미달 사태와 사라져가는 지역사회와 농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주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이 영화가 바라보는 농촌은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의 시각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시골로 내려온 혜원은 마치 캠핑 온 캠핑러처럼 묘사되고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과 먹고 술을 마시며 한 해를 보내고 다시금 서울로 올라가는 모습은 지금의 우리가 휴가철에 시골로, 해외로 떠나서 마음껏 소비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 이 영화가 그리고자 한 것은 그저 휴가철 우리의 모습일 뿐이다. 잠깐 즐기다 떠나면 그만일 뿐일 시골의 모습, 그저 그 정도로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시골을 이용하여 ‘힐링’ 이라거나 ‘휴식’이라고 하는 감성을 자극하여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상업 영화에 그쳤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과 밝은 색감이 두드러지는 예쁜 영상을 통해 애써 낭만적인 시골의 풍경을 묘사하여 시골에서의 생활이 마치 모두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기만 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한국판 <리틀포레스트>. 영화에 소개된 꽃을 꺾어 장식한 파스타는 마치 그 상징처럼 다가오는데 이 영화처럼 아름다운 시골의 모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꽃을 얻기 위해 흘린 땀과 수고, 노동의 가치가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진정한 <리틀포레스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